

哲學的 思惟의 理解

根源的 了解로서의 그 構造關聯(三)

金基錫

人間은 본대 社會的 歷史的 存在가 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人間의 지니는 行動은 그것이 自然히 社會的 歷史的 主體의 表現이 되어야한다.

-여기에 자 反對할이가 누굽니까. 그러나 이제 잠간 이야기를 그치고 이르는바 『社會的』 『歷史的』의 根本構造를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理解가 한 거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잇음을 承認하지 아니치 못하게 됩니다. 심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眞實한 意味의 社會, 眞實한 意味의 歷史는 그것이 오로지 文化를 가지는 까닭으로 해서 發見또 成立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社會 나 歷史의 빛나는 徵標로서의 文化, 이 文化는 아시다 싶이 理性에 얽매입니다. 理性을 기다려서 비로서 建設되고 擁護됩니다. 人間의 行動에 대한 우리들의 省察은 그것이 첫째 단순한 運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論據에서 出發하여 지극히 거준대로 社會, 歷史, 文化概念을 거쳐 이제 理性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할 때 우리들은 앞에서 人間에게 理性이있고 이 理性과 함께 感情 또는 衝動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안했습니까. 人間의 實存은 분명히 理性과 行動또는 思惟와 實踐의 具體的 關聯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人間의 現實的인 生에 있어서 理性과 行動이 마조 선다고 보면서 이 行動마저 어느 意味의 理性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암만해도 行動의 性格으로서 『理性적』을 들지 안할없습니다. 行動은 말하자면 理性的인데 있어서 그것이 自己를 단순한 運動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에게 됩니다. 一切의 理性的인 運動, 이것은 모두 行動으로 불려져서 좃습니다.

人間을 『생각하는 存在』로만보는 見解에 우리들은 反對합니다. 人間을 『움직이는 存在』로 보아버리는 主張에 우리들은 異議를 품습니다. 하나는

척경 사람들을 헛된 觀想에 잠기게 하고 하나는 자칫하면 사람들을 사나운 殺伐에 잇글게 됩니다.

人間에게 이른바 純粹한 理性, 純粹한 行動이란것이 잇겟습니까. 理性은 본대 行動的 理性이 되고 行動은 위낙 理性的 行動이 됩니다. 이 行動的 理性 또는 理性的 行動이란것에 잇어서

人間 存在의 根本徵標를 외온다고 하면 사람에게 存在및 그 세계에 대한 不斷한 反省과 省察이 잇는 것은 진실로 人間本然의 運命및 行程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人間이 그 生活資料를 生産하면서부터 自己를 自然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生産이란 어떤 意圖와 顧慮를 가져야 하고 그러케 하기 위하여는 거기에 어느 意味의 理性의 作用같은것이 움죽여야 하지 안겟습니까.

한 옛적에 산과들에서 군데군데 때를지어 가지고 다니는 人類의 祖先이 어찌다가 돌뿌중다리, 나무작대기로 樹木이나 地面을 훔쳐본것이 그들에게 『연장』이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 『연장』이 精神의 領野, 文化의 領野에 까지 퍼지는데 잇어서 저 놀라운 『觀念의 發見』을 가져 왔다고 합니다. 이 『연장』의

使用은 무론 단순한 自然的 또는 自然學的 運動은 아닙니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시냇물이 흐를 때 그것이 한 개 運動이 되기는 할지언정 이 使用 또는發見이 될 길이 잇겟습니까.

人間이 가지는 使用이나 發見은 그것이 암만해도 역시 理性을 또는 理性에 가까운 것을 前提로 하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人間의 行動이란 그것이 적고 크고 또 열고 깊고 간에 이 理性에 依하여 물 물지 안는 구석이 없겟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理性이란 말에 이끌리는 탓인지는 모르나 헤-겔의 저 有名한 命題 『理性的인것은 現實的 現實的인것은 理性的』이라는 말을 想起합니다. 여기에 씨여진 『理性的』에서 그 神學的 意味만을 떼어버린다고 하면 이 조그만 言表는 그대로 한개숨췌만흔 見解가 되는 것이 아니겟습니까.

人間 存在의 現實的인 徵標의 하나로 이 理性을 내어 세운다고 하여 人間 生活의 標識이 純粹한 觀想 또는 諦觀도 보아왔거니와 行動에 얽매어서만 行動에 옮겨가려는 □□를 가지는데 잇어서만 自己를 理性으로 限定하게 됩니다.

人間의 實存은 그것이 體驗의 世界로서의 意味를 가집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들의 現實的인 生은 그것이 自己및 世界에 대한 不斷한 理解, 解

釋, 省察에 있어서 짜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理性이라고 물러온 것은 곧 이 體驗의 世界, 또 그 表現의 世界로서의 理解, 解釋 및 省察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잠깐 原始的 理性이라고 부르기로 하면 이

始原 的 理性에 있어서 人間의 一切의 理論과 實踐이 構成 또 持續됩니다. 이 始原的 理性은 말하자면 理性的 根源, 나아가 行動의 根源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哲學的 思惟가 그우에서 自己를 原理의 學 根據의 學으로 主張하기에 이르는 現實的 地盤입니다.

우리들의 現實的인 生은 만흔 要求, 만흔 運動의 體系인채 한정 없이 넓고 아득한 領野를 버리고 있습니다. 言語, 習慣, 制度. 學術, 道德, 藝術 및 宗教, 이것들은 모두 理性的-行動的, 行動的 理性的인 性格을 가지고 한가지로 人間의 主體性을 表現 또 主張합니다.

그런데 이제 哲學의 領域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哲學은 본대 그 자신의 領域이란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言語의 領域이니 哲學의 그것이 되지 못한다.

여기 는 道德의 領域이니 哲學의 그것이 되지 못한다.-이러케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 對象的 領域이 무엇이었고 간에 그것이 한 개 原理的인 省察에 도라올 때 거기에는 모두 哲學의 世界가 建立됩니다.